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2016
April. 22, 2016, pp.88-92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김성훈*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벤처경영학과 석사과정
남정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하에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핵심주제어 : 창업생태계, 창업환경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은 7.4%이지만 체감실업률[2]은 10.5%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분석결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4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한 23.4%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문제해소를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여 대기업과 연계된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이뤄내고자 6개월 챌린지 플랫폼 113억원, 창업성장자금 635억원, 지역특화산업 366억원, 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12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1.5조원 등 수십 개의 창업지원사업에 수조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생태계 수준의 측정지표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는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전체 순위 2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 2015).

2016년이면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창업자금, BI,

* shkim@koef.or.kr
** namjm@dankook.ac.kr
1) 만 15~29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산정 기준을 사용함.
2) 아르바이트 종사자,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인구를 감안한 실업률.

창업교육 등의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M&A, 재도전 등 출구전략을 위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이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KAIST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2015년 분석자료를 보면, 창업기업의 1년 후 생존율은 50%, 2년 후 생존율은 25%, 3년 후 생존율은 10%로 이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업실패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성장 동력을 창업을 통해 이뤄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수많은 청년들을 실패의 고통에 빠트리고 평생신용불량자 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창업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1) 창업지원사업

정부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원 사업으로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등 창업 준비·실행지원 사업 16개, 엔젤투자매칭펀드,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초기성장지원 사업 12개,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특정분야 또는 대상지원 사업 14개로 총 4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65개의 창업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 2015년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사 업 명	
창업준비·실행지원	중소기업청 - 청소년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운영, 창업대학원,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운영,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창업인턴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TIPS),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시제품제작터 운영,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초기성장지원	중소기업청 -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엔젤투자매칭펀드, 청년창업펀드, 창업기업 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보증(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가 사전보증(기술보증기금), 시니어창업지원(지역신보), 창업기업연대보증면제 특례보증(지역신보),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특정분야 대상지원	중소기업청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참살이 실습터 지원, 재창업자금
	산업통상자원부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기업인큐베이팅 육성,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지원, 국제공동제작영화 제작비용 지원,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

<표 2> 2015년도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사 업 명	
서울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장년창업센터 운영, 서울 아스피린센터 운영,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디자인창조기업 육성 - DMC창업센터 운영, DMC 첨단산업센터 관리운영,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부산	부산 청장년 창업 지원, 청년창업특례자금, 부산모바일앱센터 구축·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대구	청년창업지원사업, 대구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 여성회관 창업보육센터 운영
광주	엔젤투자매칭펀드, 구조고도화 자금지원,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공방창업지원, 청년창조기업 지원사업,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강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지원, 창업초기지원자금 지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강원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 중소기업 지원펀드 운용,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지원, 스마트 창작터 운영지원
울산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충남	청년CEO 500프로젝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전북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4050 행복 창업 프로젝트,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경북	우수창업보육센터운영,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장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CEO육성사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경남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경남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경남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제주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지원
세종	창업보육지원, 창업교육 및 활성화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

3.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분석

1) 조사개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3]설문조사(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 관련 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측정내용		인원(명)	퍼센트
소속	창업가	113	30.7
	예비 창업가	71	19.3
	학생	60	16.3
	창업 관련 기관 종사자	47	12.8
	투자자	16	4.3
	일반인	50	13.6
	기타	11	3.0
학생여부	고등학생 이하	5	1.4
	대학(교) 재학생	75	20.4
	전문학사	19	5.2
	학사	151	41.0
	석사	76	20.7
	박사	37	10.1
	결측	5	1.4
전공	공학 분야	121	32.9
	경상계열 분야	89	24.2
	스포츠 분야	3	0.8
	문화예술 분야	48	13.0
	인문사회 분야	71	19.3
	자연과학 분야	28	7.6
	기타	7	1.9
	결측	1	0.3
성별	남자	264	71.7
	여자	104	28.3
연령	10대	8	2.2
	20대	117	31.8
	30대	117	31.8
	40대	79	21.5
	50대	37	10.1
	60대	5	1.4
	결측	5	1.4
결혼유무	미혼	198	53.8
	기혼	168	45.7
	결측	2	0.5
부모님이 사업가나 전문경영인 유무	예	110	29.9
	아니오	256	69.6
	결측	2	0.5
창업경험 유무	없음	216	58.7
	1회	90	24.5
	2회	36	9.8
	3회	16	4.3
	4회 이상	10	2.7
현재 창업 유무	아니오	203	55.2
	예(0~1년)	51	13.9
	예(1~3년)	56	15.2
	예(3~5년)	18	4.9
	예(5년 이상)	23	6.3
	결측	17	4.6
현재 창업하신 분야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야	제조업	56	15.2
	도매 및 소매업	29	7.9
	숙박 및 음식점업	27	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9	24.2
	금융 및 보험업	6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	12.0
	교육서비스업	45	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1.6
	예술, 스포츠 및 여과관련 서비스업	40	10.9
	농업, 임업 및 어업	7	1.9
	기타	9	2.4
	결측	10	2.7
창업계획	전혀 아니다	18	4.9
	아니다	21	5.7
	보통이다	63	17.1
	그렇다	107	29.1
	매우 그렇다	78	21.2
	현재 창업가	80	21.7
	결측	1	0.3
소득수준 (동일연령대 대비)	매우 낮은 수준	57	15.5
	낮은 수준	76	20.7
	보통이다	167	45.3
	높은 수준	54	14.7
	매우 높은 수준	10	2.7
	결측	4	1.1

2) 설문조사 문항분석 결과

아래의 <표 4>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응답자의 41.5%가 보여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창업지원 이후 사업관리 부족(일회적인 창업지원)이 17.5%, 실패 후 재기할 수 없는 금융환경(연대보증, 금융거래 제한 등)이 16.9%의 응답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집행자인 창업관련기관 종사자들도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다른 응답자들과 유사한 비중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3) 조사기간 : 2015.7.8. ~31

<표 4>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문제점

구 분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	창업 관련 기관 종사자	투자자	일반인	기타	전체
보여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	47 (42.0%)	32 (45.1%)	26 (44.1%)	19 (40.4%)	7 (43.8%)	17 (34.0%)	4 (36.4%)	152 (41.5%)
창업지원 이후 사업관리 부족 (일회적인 창업지원)	19 (17.0%)	8 (11.3%)	10 (16.9%)	13 (27.7%)	3 (18.8%)	9 (18.0%)	2 (18.2%)	64 (17.5%)
실패 후 재기할 수 없는 금융환경 (연대보증, 금융거래 제한 등)	22 (19.6%)	14 (19.7%)	6 (10.2%)	5 (10.6%)	4 (25.0%)	8 (16.0%)	3 (27.3%)	62 (16.9%)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성 부족	10 (8.9%)	9 (12.7%)	6 (10.2%)	5 (10.6%)	1 (6.3%)	6 (12.0%)	2 (18.2%)	39 (10.7%)
재창업지원제도 부족	2 (1.8%)	1 (1.4%)	2 (3.4%)	1 (2.1%)	0 (0.0%)	6 (12.0%)	0 (0.0%)	12 (3.3%)
창업지원사업의 컨트럴타워 부재 (산발적인 창업지원사업)	3 (2.7%)	2 (2.8%)	3 (5.1%)	2 (4.3%)	0 (0.0%)	2 (4.0%)	0 (0.0%)	12 (3.3%)
현장과 괴리된 창업지원정책	8 (7.1%)	5 (7.0%)	6 (10.2%)	2 (4.3%)	1 (6.3%)	1 (2.0%)	0 (0.0%)	23 (6.3%)
기타	1 (0.9%)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2 (0.5%)
합계	112 (100.0%)	71 (100.0%)	59 (100.0%)	47 (100.0%)	16 (100.0%)	50 (100.0%)	11 (100.0%)	366 (100.0%)
차이검증(ANOVA/Peason)	F : 0.410 / Chi-Square : 35.319**							

***,**,*:각각 1%, 5%, 10%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아래 <표 5>은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자중 34.1%가 중앙정부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국내 대기업이 28.3% 지방자치단체가 7.4%의 응답률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표 2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행자인 창업관련기관 종사자들도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29.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앙정부 및 국내 대기업의 역할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크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5>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

구 분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	창업 관련 기관 종사자	투자자	일반인	기타	전체
중앙정부	39 (34.8%)	30 (42.9%)	21 (36.2%)	14 (29.8%)	3 (18.8%)	13 (26.0%)	4 (36.4%)	124 (34.1%)
지방자치단체	5 (4.5%)	9 (12.9%)	3 (5.2%)	3 (6.4%)	0 (0.0%)	7 (0.0%)	0 (0.0%)	27 (7.4%)
국내 대기업	24 (21.4%)	18 (25.7%)	21 (36.2%)	16 (34.0%)	10 (62.5%)	10 (20.0%)	4 (36.4%)	103 (28.3%)
창업가	9 (8.0%)	2 (2.9%)	3 (5.2%)	4 (8.5%)	1 (6.3%)	4 (8.0%)	2 (18.2%)	25 (6.9%)
성공한 벤처 1,2세대	7 (6.3%)	0 (0.0%)	4 (6.9%)	3 (6.4%)	0 (0.0%)	8 (16.0%)	0 (0.0%)	22 (6.0%)
VC 및 엔젤투자자	8 (7.1%)	3 (4.3%)	0 (0.0%)	2 (4.3%)	0 (0.0%)	2 (4.0%)	0 (0.0%)	15 (4.1%)
대학 및 학계	12 (10.7%)	7 (10.0%)	6 (10.3%)	4 (8.5%)	2 (12.5%)	3 (6.0%)	1 (9.1%)	35 (2.7%)
공동책임	7 (6.3%)	1 (1.4%)	0 (0.0%)	1 (2.1%)	0 (0.0%)	1 (2.0%)	0 (0.0%)	10 (2.7%)
기타	1 (0.9%)	0 (0.0%)	0 (0.0%)	0 (0.0%)	0 (0.0%)	2 (4.0%)	0 (0.0%)	3 (0.8%)
합계	112 (100.0%)	70 (100.0%)	58 (100.0%)	47 (100.0%)	16 (100.0%)	50 (100.0%)	11 (100.0%)	364 (100.0%)
차이검증(ANOVA/Peason)	F : 1.487 / Chi-Square : 66.839***							

***,**,*:각각 1%, 5%, 10%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6>는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창업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력 확보가 22.2%, 판로 확보가 13.4%의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창업 자금 조달 및 인력 확보가 70%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창업생태계

를 위해서는 창업 자금 조달과 관련된 창업지원사업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구축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6>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

구 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창업 자금 조달	62(45.3%)	37(43.0%)	19(52.8%)	13(52.0%)	131(46.1%)
인력 확보	23(16.8%)	24(27.9%)	10(27.8%)	6(24.0%)	63(22.2%)
기술수준 확보	20(14.6%)	6(7.0%)	4(11.1%)	2(8.0%)	32(11.3%)
판로 확보	17(12.4%)	17(19.8%)	1(2.8%)	3(12.0%)	38(13.4%)
창업 관련 규제	4(2.9%)	1(1.2%)	0(0.0%)	1(4.0%)	6(2.1%)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1(0.7%)	0(0.0%)	0(0.0%)	0(0.0%)	1(0.4%)
기타	10(7.3%)	1(1.2%)	2(5.6%)	0(0.0%)	13(4.6%)
합계	137(100.0%)	86(100.0%)	36(100.0%)	25(100.0%)	284(100.0%)
차이검증(ANOVA/Peason)	F : 1.631 / Chi-Square : 21.790**				

***,**,*:각각 1%, 5%, 10%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아래 <표 7>은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부 창업지원지원금이 25.7%, 공공기관의 융자, 보증 및 일반은행 대출이 12.1%의 응답률을 보였다. 상기 결과는 창업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한 비율로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부 창업지원지원금, 공공기관의 융자, 보증 및 일반은행 대출의 순위를 보였다.

<표 7>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

구 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개인 자금	61(46.2%)	41(47.7%)	22(61.1%)	17(65.4%)	141(50.4%)
공공기관의 융자, 보증 및 일반은행 대출	17(12.9%)	13(15.1%)	3(8.4%)	1(3.8%)	34(12.1%)
친척/친구 자금	0(0.0%)	7(8.1%)	0(0.0%)	1(3.8%)	8(2.9%)
벤처캐피탈	3(2.3%)	0(0.0%)	1(2.8%)	0(0.0%)	4(1.4%)
개인투자자(엔젤)	6(4.5%)	3(3.5%)	1(2.8%)	2(7.7%)	12(4.3%)
정부 창업지원금	37(28.0%)	21(24.4%)	9(25.0%)	5(19.2%)	72(25.7%)
기타	8(6.1%)	1(1.2%)	0(0.0%)	0(0.0%)	9(3.2%)
합계	132(100.0%)	86(100.0%)	36(100.0%)	26(100.0%)	280(100.0%)
차이검증 (ANOVA/Peason)	F : 1.312 / Chi-Square : 29.967***				

***,**,*:각각 1%, 5%, 10%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